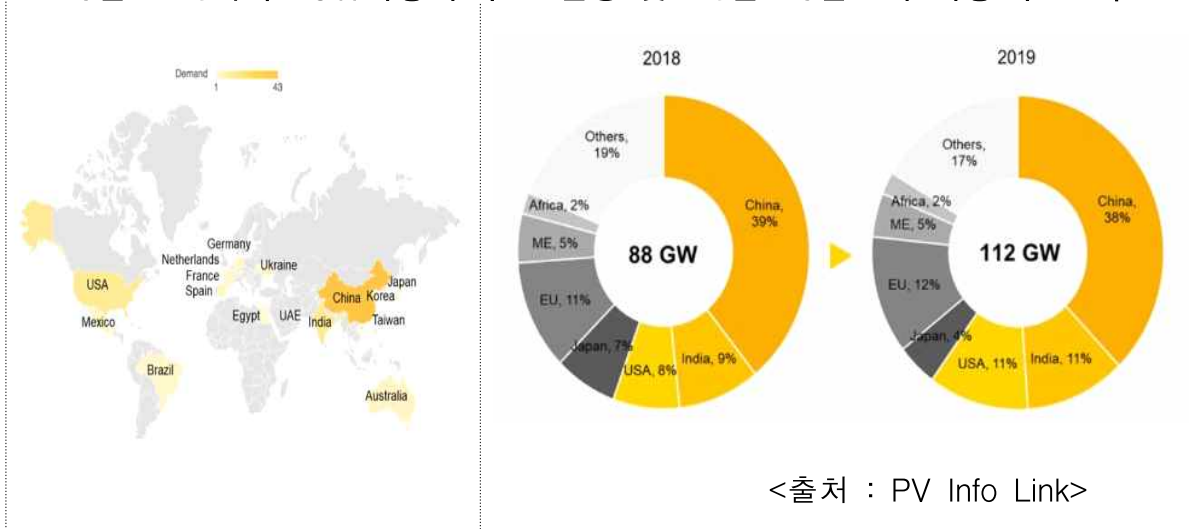


- ◆ ‘19년도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 수요는 중국, 미국, 인도 등의 수요 증대로 112GW 예상
- ◆ 중국이 거대 내수시장·인수합병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동시에 고효율·고품질 제품 개발을 병행중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 위기
 - 기술 개발 등으로 제품경쟁력을 회복하고 중동·동남아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확대 필요

□ ‘19년도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 수요 112GW 예상

- 2019년도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 수요는 중국, 미국, 인도 등의 수요 증대로 112GW 예상(PV Info Link, ‘19.11.28)
 - ‘18년도 중국 정부의 태양광 지원 축소 영향으로 태양광 수요감소 및 공급체인 전 분야 설비 가격이 30%하락하며, 태양광 시장 침체를 야기 함
 - * 태양광발전의 지속 발전 가능성·질적 성장 확보 및 보조금 지원축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‘2018년 태양광 발전 관련 통지(개편)’을 발표(‘18.5월)
 - 하지만, 중국의 향후 정책 발표*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의 회복 기대와 세계 16개국에서 1GW이상의 수요증대로 88GW(‘18)에서 112GW(‘19)로 설치 예상
 - * 중국 국가에너지국(NEA)이 ‘전력부문 13.5계획 중기 평가 및 조정 추진에 대한 통지’를 통해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조정(11월)
 - 중국의 세계 태양광 시장 점유율*은 점차 감소중(38%(‘18)→39%(‘19))이며, EU회원국의 시장 점유율(11%(‘18)→12%(‘19))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
 - * ‘17년도 전세계 설치된 신규 태양광(98GW)중 54%(53GW)가 중국에 설치

<‘19년도 16개국 1GW이상의 수요 현황 및 ‘18년·‘19년도의 예상 수요 비교>



<출처 : PV Info Link>

□ '19년도 태양광 시장 주요 예상 동향

-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증가·설비증설*로 소규모 및 해외 제조업체의 경쟁력 위축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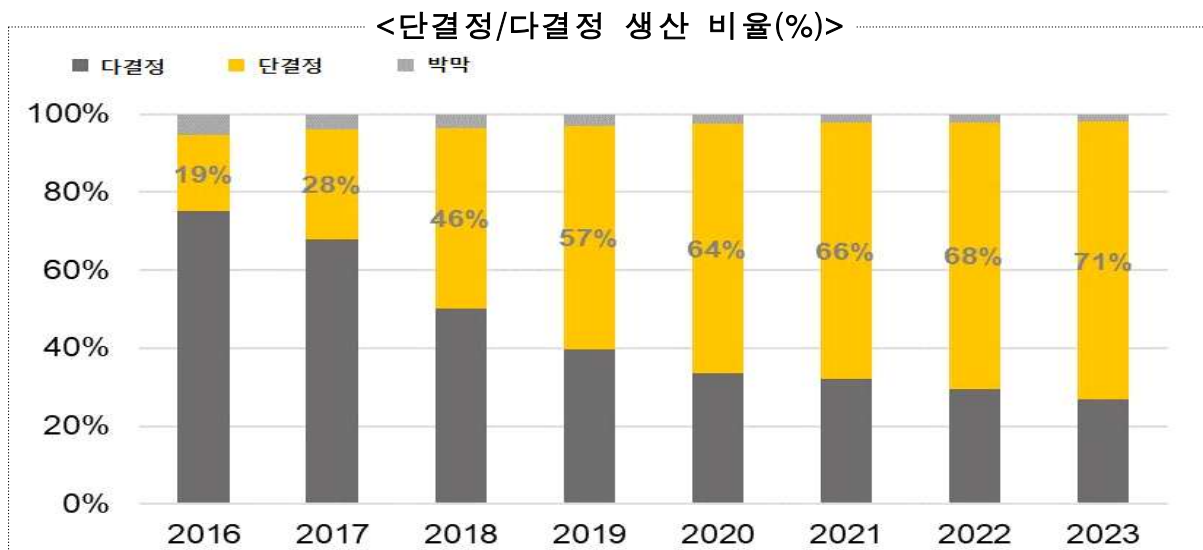
* 中 신장, 내몽골, 쓰촨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력이 60%('18년도 대비) 향상 될 것으로 기대
- 하지만, 다결정 웨이퍼 분야는 업체 별 단가가 비슷한 바, 인수합병 속도가 낮아, 하반기 시장 회복시 해당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예상

- 중국 정부는 저효율 모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탑 러너(Top Runner)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산 제품의 효율을 급속히 개선 중

- 단결정 PERC* 모듈의 효율향상과 설비증설로 시장점유율 증가 예상(46%('18)→57%('19))

* Passivated Emitter Rear Cell

** 단결정 PERC(310W)모듈은 다결정 모듈(275W)대비 효율이 높아 다결정 PERC 선호도 증가 추세



<출처 : PV Info Link>

- '19년도 상반기는 ① 중국 춘절(연휴), ② 탑 러너(Top Runner) 프로그램 ③ 인도, 일본, 호주의 낮은 수요 등 설치가 적을 예상이나, 하반기 태양광 시장 회복을 예상

- 3·4분기에 적어도 64GW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, 실리콘 및 단결정 웨이퍼 제품 등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

□ 시사점

- 중국이 거대 내수시장·인수합병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 및 고효율·고품질 제품 개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 위기

- 기술 개발 등으로 제품경쟁력을 회복하고 중동·동남아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확대 필요

<출처>

1. 신재생에너지 부문

- 해외이슈 <2019년도 신규 태양광 발전 수요(112GW) 및 동향>
 - Peak Season to Arrive Again in 2019! Five Major Trends in PV Industry(PV InfoLink, 2018.11.28.)
 - PV Info Link expects solar demand to reach 112 GW in 2019(PV Magazine, 2018.11.30.)
 -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 제193호 (한국에너지공단, 2018.6.22)
 - 중국 지방정부,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 발표(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(제18-42호), 에너지경제연구원, 2018.11.25.)